

교원 역량강화 연수 '다채'

전북자치도교육청, 여름방학 맞아 운영 교원 미디어 리터러시 직무연수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여름방학을 맞아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오는 8월 8일까지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2024년 교원 미디어 리터러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도내 초·중등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4기에 걸쳐 각각 12시간씩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생성형AI와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론과 교수법 △미디어리터러시 수업 워크숍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실습 등이다.

이어 8월 2일까지 초·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육 숲해설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내용은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생태지도 만들기 실습 △자연물을 활용한 생태교육 △자연의 가치를 생애미술포럼 △자연환경해설 기법 등이다.

이와 함께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전북대학교 교육연수원과 전주대학교 평화관에서 '진로와 직업', '환경' 교

과목 직무연수가 각각 진행된다.

중등 희망교사 20명씩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 에 대한 이해 △수업의 이론 및 설계 △수업의 실제와 적용 △평가의 실제와 기록 등 각 3차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끝으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학력지원센터 파견교(강)사와 현장 초등교원들을 대상으로 난독·경계선지능 심화연수를 진행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방학중에도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배움에 앞장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월 6일까지 진행되는 중등교사(비영어교과)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해외연수를 앞두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중등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해외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달 6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월 6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중등교사(비영어교과)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해외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해외 교육 현장 사례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는 호주 브리즈번 지역의 중등학교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다양한 수업 장면을 경험하고, 분반별 세미나를 통해 전북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 등을 발굴한다.

세부적으로는 호주 브리즈번 파두아 칼리지(Paduua College), 세인트 제임스 칼리지(St. James College) 수업참관, 토

론 및 피드백 세션 활동,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이 이어진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두 차례의 사전교육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와 에듀테크·AI를 적용한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연수 후에는 성과보고회와 초청형 수업공개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수업연구·수업나눔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사전활동-본활동-사후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면서 "이를 통해 수업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LINC3.0사업단은 지난 25~26일 스타센터에서 드론 촬영 교육 캠프를 운영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주대 LINC3.0 사업단, 드론 촬영 교육 캠프

전주대학교 LINC3.0사업단(단장 김상진)은 지난 25~26일 스타센터에서 드론 촬영 교육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생과 교직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교육은 새로운 미래 신기술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 영상 촬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드론 운영 및 실습, 드론 영상 기획, 드론 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대학으로는 목포대, 강원대, 창원대, 우석대, 전주대 등이며, 드론 촬영 전문 교육 강사인 동서울대 스마트드론학과의 김준호 교수를 초청해 2일간 진행했다.

특히 전주대는 지난 2020년부터 드론 융합 전공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 최초로 전국 35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클럽의 회를 출범했다. 또한 2024년에는 드론 교육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드론 전문 인재의 양성에 기여하여 2025년 RISE 체계로의 전환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드론 전문교육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상진 단장은 "미래 신기술인 드론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드론 분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드론 분야 실용 인재를 충실히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하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달 16일까지 총 14회 중대·산업재해 예방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업업무종사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7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영안(교)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 운전, 통학버스안전지도사, 미화원, 경비원 등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해 중대재해 및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로 집체교육을 확대해 1일 6시간씩 2일 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이해, 운영질량 예방 건강수칙,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전문 강사가 참여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도 병행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권역별 청렴 힐링 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청렴 힐링 연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존의 청렴 교육에 공연형 교육을 접목시켜 청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일상 속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했다.

이날 연수를 시작으로 △30일 정읍·부안·고창권역 △8월 5일 남원·장수·임실·순창권역 △8월 6일 군산·익산권역 △8월 7일 완주·김제·무주·진안권역으로 나뉘어 총 4회 운영된다.

교육은 △청렴연극공연 △청렴특강 △청렴정책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직장내 괴롭힘 등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연극으로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하며, 이는 공직자의 기본 마음"이라면서 "청렴분야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 향상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된장의 '깊은 맛' 정의 담은 연구 '주목'

전북대 황지선 박사과정생, 한국식품과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사람마다 다르게 연상되는 전통된장의 깊은 맛에 대한 정의를 담은 이채로운 연구가 최근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황지선 박사과정생(식품영양학과)이 '짠맛과 감칠맛이 소비자들의 전통된장의 깊은 맛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전북대 감각과학연구소가 이 농림식품기술기획개발원(IPET)



연구를 통해 사람마다 인지하고 있는 '깊은 맛'의 정의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 깊은 맛의 정의를 먼저 내린 뒤 깊은 맛을 인지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객관

적 지표로 확인했다.

황지선 박사과정생은 "'코쿠미'라고 알려진 깊은 맛의 경우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깊은 맛을 인지하는 수용체(Receptor)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통장류를 대표하는 된장에서의 깊은 맛에 대해 연구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깊은 맛에 대해 연구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좀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해야 할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24~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강당 및 참조나라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인문학 나들이 주간에 도내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2024 인문학 나들이 주간' 성료

전북교육청이 마련... 학생·학부모·교사 등 10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마련한 '2024 인문학 나들이 주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26일 본청 강당 및 참조나라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인문학 나들이 주간에 도내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일상의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1부에서 인문학 강연과 인문학 글쓰기를, 2부에서는 인문학 고전산책을 각각 운영했다.

먼저, 인문학 강연에는 김재배 원광대학교 교수와 강원국 작가가 강사로 참여해 인문학의 사유와 글쓰기에 대

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문학 글쓰기는 24~26일 전북 현지 작가들과 함께 주제에 따른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20개 프로그램에 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박원선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교실에 참여한 전주화정초 양혜원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 정말 좋았고, 3학년엔 올라가서도 또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2부 인문학 고전산책은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으로 대상을 확장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문학 고전산책에 참여한 우석고

윤지용 학생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알았고, 진로를 위해 좋은 배양토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주화정중 3학년 학생 14명과 함께 참여한 오진진 교사는 "강연, 글쓰기, 고전강의까지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줘 고맙다"면서 "교사로서 뿌듯한 인문학 나들이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문학 나들이 주간을 통해 우리 학생들 한명 한명이 삶에 필요한 교양과 지혜를 갖추고, 삶의 주도성을 찾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독서 인문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박물관, 우수 인프라 지역 학생교육 접목 '호응'

찾아가는 박물관·인문학 창의체험 등 통해 지역사회 기여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엄혁용)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접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박물관과 인문학의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 박물관 콘텐츠를 연계시켜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과 9일 부안 백산초와 김제 원평초를 찾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시 및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도내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교



육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권역별로 6년째 이어 오고 있다.

특히 고문서 스토리텔링, 전통 인쇄 문화 체험, 유물 퍼즐, 토기 설명, 수막새 맞추기 등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활용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공간을 일선 학교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대박물관은 인문학 창의체험 '꿈나무'를 열고, 전주성으로 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인문교육 확산도 주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문체부 공모사업이던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시행,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다.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 전북대박물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부활한 것.

엄혁용 관장은 "전북대박물관이 거점국립대 박물관으로서 지역 교육과 연계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주부지도와 전주성 내 우리 문화유산 등을 학교 교과와 연계하고,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문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거점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